

2023년 인문팔경 북클럽 운영계획서

1. 클럽명 : 로베르트 무질의 <특성 없는 남자> 읽기
2. 클럽장 : 신지영 (고려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1) 클럽 상세 주제

회차		활동 내용
7월	개별독서	『특성 없는 남자』 1권
	정기모임	둘째 주 금요일 오후 4시 / 넷째 주 금요일 오후 4시
	결과제출	독후감 탑재 및 결과보고서 제출
8월	개별독서	『특성 없는 남자』 2권, 『특성 없는 남자』 3권
	정기모임	둘째 주 금요일 오후 4시 / 넷째 주 금요일 오후 4시
	결과제출	독후감 탑재 및 결과보고서 제출
9월	개별독서	『특성 없는 남자』 4권
	정기모임	넷째 주 금요일 오후 4시
	결과제출	독후감 탑재 및 결과보고서 제출
10월	개별독서	『특성 없는 남자』 5권
	정기모임	넷째 주 금요일 오후 4시
	결과제출	독후감 탑재 및 결과보고서 제출

(2) 클럽 목표 및 기대 효과

1995년 미국에서 로베르트 무질의 『특성 없는 남자』가 출간되었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리시스』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와 더불어 20세기 문학의 삼위일체를 이루는 작품의 영역본이 드디어, 마침내 나왔다”라고 썼다. 1931년 무질의 『특성 없는 남자』 제 1권이 출간된 지 90년이 된 2021년 ‘마침내, 드디어’ 소설의 한국어 완역본이 본 클럽장의 번역으로 나오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그간 두 번에 걸쳐 『특성 없는 남자』 번역본이 출간되었지만 둘 다 부분 출간이었다. 이 소설은 의심할 바 없이 세계문학의 고전이지만 한국에서 그간 소설의 완역본이 나오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도 방대한 분량과 어려운 내용 탓이 아닐까 한다. 번역자에게도 15년의 시간을 요하는 엄청난 도전이었었던 이 작품은 총 5권, 1600쪽에 달한다. 어마어마한 분량과 어려운 내용은 독자에게도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북 클럽은 20세기 독

일 소설의 최고 작품인 이 고전을 읽고 토론하여, 기술과 돈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성과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3) 주제별 필수 인문고전 1권 및 관련 인문자료

1. 필수 인문고전: 『특성 없는 남자』

1999년, 독일최대의 미디어모굴인 “베어텔스만”과 공공기관인 “문학의 집 뮌헨”은 비평가, 출판사편집인, 작가들을 대상으로 “20세기 최고의 소설”을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카프카, 토마스 만과 같은 작가들의 작품을 제치고 로베르트 무질의 『특성 없는 남자』가 20세기 “가장 중요한” 독일어 소설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1942년 무질이 스위스 망명 도중 사망한 지 7년 후까지도 무질은 “20세기 전반부의 가장 중요한 독일 소설가이자 이 시대의 가장 덜 알려진 작가”(런던 타임스)였다. 그러나 무질의 동시대인이었던 토마스 만은 1939년 한 편지에서 무질의 소설을 두고 다음과 같이 예언한 바 있다. “동시대의 어떤 독일어 작품에서도 내가 이 작품만큼이나 후대의 판단을 확신할 수 있는 작품도 없습니다. 『특성 없는 남자』는 의심할 바 없이, 우리 시대가 내놓을 수 있는 걸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가장 위대한 산문입니다.”

『특성 없는 남자』는 형식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독일 뿐 아니라 서양 문학사에서 큰 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 우선, 에세이적 서사라는 『특성 없는 남자』의 독특한 서사 방식은 기존의 서사방법으로는 더 이상 현실과 삶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야기의 위기’에서 출발한다. 지식과 반성, 사고의 삽입이라는 이러한 에세이적 서술방식은 헤르만 브로흐나 토마스 만 등 동시대 작가들에게서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쿤데라가 지적한 대로, 무질 소설의 에세이적 요소는 토마스 만의 『마의 산』에 나타나는 에세이적 요소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예를 들어 무질의 카카니엔은 토마스 만의 『마의 산』의 다보스와 같은 배경이 아니라 그 자체로 주제가 된다. “모든 것이 테마(실존적 심문)이다. 모든 것이 테마가 되면 배경은 사라지고 큐비즘의 그림에서처럼 오로지 전면만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의 폐지에서 나는 무질이 이루어낸 구조적 혁명을 본다”(쿤데라).

또한 사고와 반성이라는 에세이적 요소들이 이야기의 흐름을 끊고 선형적 이야기를 방해하는 무질의 이러한 글쓰기 방식은 소설의 내용적 측면과도 일맥상통한다. 소설의 주인공 울리히는 우리의 삶이 “이야기의 실마리”를 잃었다고 진단한다. “우리가 체험들을 더 이상 우리 자신과 관계시킬 수 없고, 이것이 일어난 후 저것이 일어났다는 인과율적인 일차원적인 배열이 더 이상 없다.” 무질은 “삶의 추상화”와 “개인의 위기”로 요약되는 이러한 현대 인간의 실존적 문제를 소설에서 “남자 없는 특성들의 세계”, “늘 비슷한 일만 일어난다”와 같은 용어로 요약하고 나아가 “특성 없는 남자”, “가능성감각” “유토피아주의”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 한다. 무질의 소설은 이후 앞서 언급한 쿤데라뿐 아니라 잉에보르크 바흐만, 아도르노, 페터 슬로터다이크, 니콜라스 루만 등 많은 이들에 의해 인용되고 해석되면서 작가들뿐 아니라 사상가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2. 관련 인문 자료

무질의 데뷔작 『소년 퇴를레스의 혼란』(창비 2021), 이 작품을 뉴 저먼 시네마의 대표 감독 폴커 쉘렌도르프가 영화화한 <어린 퇴엘레스>(1966), 무질의 에세이, 연설

및 단편 모음 『생전유고/어리석음에 대하여』(워크룸프레스 2015), 밀란 쿤데라의 작품
평 『소설의 구성』(민음사 2013), 『배신당한 유언』(민음사 2013) 등.

(5) 클럽 전체 모임 일정

일시:

장소:

(6) 클럽장 소개

- 이름: 신지영
- 연구업적(번역): 로베르트 무질의 『생전유고/어리석음에 대하여』(2005), 『특성 없는 남자』(2022)(그 외 연구업적은 고려대학교 독어독문학과 홈페이지 참조)
- 약력: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석사), 독일 쾰른대학교 박사, 덕성여자대학교 부교수, 고려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자세한 약력은 고려대학교 독어독문학과 홈페이지 참조)